

광주·전남, 관공서발 감염 확산...방역 컨트롤타워 흔들

코로나 7천명대 연일 최다... 광주시 산하기관 100명 넘게 확진 김영록 전남지사 확진 3월1일까지 재택치료...전 직원 진단검사

광주·전남에서 연일 7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지역 방역 컨트롤 타워인 광주시와 전남도까지 뒤늦게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에선 국장급 간부 등이 줄줄이 신규 확진 됐고, 전남도에선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4136명, 전남 3367명 등 모두 7503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3일 0시 기준 7308명에 이어 이틀째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연일 역대 최다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서구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각각 28명과 6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내

감염자도 2835명에 달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공서발 확산세도 매섭다. 광주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109명이 누적 확진됐으며, 최근 하루 평균 10여 명씩 신규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3급 국장급인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3일 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김 지사와 함께 비서실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오는 3월 1일까지 재택 치료를 하며 도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다. 외부 행사 등 대면이 필요한 업무는 문규주 행정부지사가 대행한다.

전남도는 또 김 지사의 접촉자들에게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 자가 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출근 하도록 했다.

이날 시·군 별로는 이날 목표 745명, 나주 467명, 여수 461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지역도 도내 신규 확진자의 39.3%인 1322명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주요 집단 감염지는 나주 의식시설 20명, 담양 제조업체 8명, 무안 요양병원 10명 등 이었다.

전국에서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만 16명 나왔다. 전날 17만 1451명에 이어 이틀 연속 17만명대를 기록했다.

/박진호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4일 오후 광주 북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김진호 기자 jeans@kwangju.co.kr

“더 이상 화정·학동 참사 안된다” 광주시, 부실공사 척결 원년 선언

이시장, 부실공사 종합대책 발표 3~4월, 1억 이상 공사현장 점검 현장 감리제도 공공성 대폭 강화

광주시가 올해 부실 공사 척결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사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부실공사가 현장 감리 부실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온라인 회견을 열고 “부실 공사를 척결해 사고 없는 안전광주를 실현하겠다”며 부실 공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학동 참사이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시와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실 공사 대책을 준비해왔다. 우선 부실 공사 예방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할 ‘부실 공사 척결 추진단(단

장 시민안전실장)’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추진단에는 시민안전실(자연재난·사회재난과), 도시재생국(도시경관과·주택정책과), 교통건설국(건설행정과), 노동협력과, 종합건설본부(품질시험과)의 모든 관련 기능이 통합된다.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바다면적 합계 5000㎡ 이상)과 준다중이용건축물(바다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경우 현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 관청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한다.

민간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승인 기관이 적정성을 전문기관에 의뢰·검토할 수 있게 하고 연면적 200㎡ 이상 공사 현장에는 착공 전 긴급대피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불량자재 반입 원천 차단에 위해 민·관 합동 품질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과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감리자가 공사 중지 요청 권한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특히 하도급업체 부실시공은 시공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부실 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실시공, 안전 위험, 부당 작업 지시 등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3~4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 현장(500여곳)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현장조사단’을 파견, 감리원의 현장 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 시공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협 요소들을 살살이 찾아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특히 안전불감증,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lucky@kwangju.co.kr

선암사 선암매, 백양사 고불매, 화엄사 흥매 “다음달 중순~하순, 꽃 활짝 피어요”

선암사 선암매, 백양사 고불매, 화엄사 흥매가 내달 중순과 하순 사이에 꽃을 활짝 피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순천 선암사 선암매’,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흥매’가 3월 하순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는 매화는 역경을 견디고 지조를 지키는 고매한 인격을 닮아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사랑받았다. 월암이 광려의 꽃향기를 읊은 매화시를 비롯해 정나라 화가 나방이 박제사에게 우정의 뜻으로 전한 매화 그림 등은 당시 매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다.

선암매는 선암사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 고목 두 그루를 일컬으며, 백양사 고불매는 1863년 절을 옮겨 지을 때 함께 옮겨 심은 매화다. 화엄사 흥매는 김상암 앞 대소속에 있다.

화엄사는 매화 사진 공모전인 ‘제2회 흥매화·툼매화 사진 대회’를 오는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한국 4대 매화로 꼽히는 강릉 오죽헌 울곡매는 지난 2017년 급작스런 기온 상승으로 피해를 입어 개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U·유럽정상 “국제법 위반 즉각 대응할 것”

정부,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행한 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데 대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되자 연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모하고 부당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수많은 민간인 목숨을 위협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이러 “러시아의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유럽-대서양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즉각 멈추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토 동맹들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유 없는 공격과 두려움에 직면한 무고한 여성, 남성, 아이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당초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알렉산더 데르크로 벨기에 총리 등 유럽 정상들도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다”면서 “유럽과 나토 등 동맹이 즉각 대응을 준비중이다”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임아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10억원 이상
하실분. 010-3605-5000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명: 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3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580,480㎡(자연상태기준) 상당.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포화암	연결암	합계	비고
수량	㎡	-	-	580,480	580,480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장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3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장 설명회: 2022년 03월 03일(14:00)
나. 입찰등록마감일: 2022년 03월 10일(14:00)
다. 개찰일시: 2022년 03월 10일
라. 낙찰자 선정: 2022년 03월 17일
(각 입찰자의 경제성 평가 산정을 위해 개찰 7일 후 낙찰자 발표)

3. 입찰방법: 일괄 매각 일괄
가. 입찰매각: 원석운반비, 원석대를 비교하여 경제성 평가 최적자(공사비 절감)인 업체
※ 입찰시 토석운반비를 수요처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우리현장이 각 입찰조건을 고려하여 표준물별 운반비 산정된 운반비로 간주 함.
나. 일매각: 임(연,경암)은 운반조건이 같을 경우 원석대만으로 낙찰자 결정
다.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6년 06월 22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의 경우
1) 현장설명회 현재 “골재취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 선별 및 파쇄업을 등록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회 시 제출하여야 한다.(아직장 또는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3개월간 발생하는 발생암을 야적할 수 있는 아적장이 확보 되어야 함)
나. 공동사항
현장설명회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회 시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절차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골재생산시설 또는 시도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 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제 1부
라. 시국제 완납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회,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우편접수는 불가함)
○ 호남고속철도2단계 제3공구 감리사무실(☎061-452-1063)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담당자(☎062-605-5365)

2022년 2월 25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사람을 찾습니다
성: 김해 김씨
女, 67세, 원송이피
생일: 10월 13일
(시: 오전 11시)
010-5061-2496

부토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토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부토는 부토공로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토공로로 간주하여 관리를 공고함.

1. 부토위치: 전남 여수시 병계동 산104-1번지
2. 부토규모: 부토면적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언분포: 연고자와 협의의 개장처리
- 무언분포: 전남 여수시 병계동 의거업자명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6. 안치장소: 여수시 소리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7. 안치기간: 화장후 10년
8. 신고처: 지방청(인양면) 010-4190-0490
9. 신고기간: 2022년 2월 25일 ~ 2022년 5월 7일
10.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재직증, 사실확인서 등
11.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사별이 불명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부토에 대하여도 이 공고에 포함함.

2022년 2월 25일
위공고인: **대리인 김병연**
전남 여수시 신기남길 23
☎010-4190-0490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2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00,000주를 3,000,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의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제기 및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주식회사 퓨텍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로 58
대표이사 김병수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장광옥(731226-XXXXXX)
• 최후주소: 광주 동구 무등로307번길 10-12, 206호 (계림동)
피상속인 방 장광옥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 주가정법원 2022년 단3113호로 신청하여 2022년 2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2월 25일
• 상속인: 장우혁(991202-XXXXXX)
목포시 완산로69번길 35, 202호 (산정동, 완산그린빌)
• 신고기간: 2022. 2. 25. ~ 2022. 5. 7.
• 채권신고처: 상속인 장우혁의 주소

산행안내
2월27일(일)
▲광주서산악회 2월27일(일) 경북봉화&오지낙동강변경제트마트길&함곡역차트레킹*업주제 육곡05:00, 동야반05:05, 북대백점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05:25, 비엔나주차장05:30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날**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